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Korean
Translation(1882-1883) of *Yesuseongkyo Yoannaebokueumjeonso*

姜 順 愛 (Kang, Soon-Ae)**

◁ 목 차 ▷

1. 서 론	번역본의 특징
2. 로스 목사의 생애와 한글성서의 번역·간행	6.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발굴본(1882-1883년)과 1883년본의 비교
3.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보급과 유통	7.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
4.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서지적 특징	8. 결 론 <참고문헌>
5.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 초 록 >

이 글은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로스 목사의 생애와 한글성서의 번역·간행,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보급과 유통,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서지적 특징,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번역본의 특징,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발굴본(1882-1883년)과 1883년본의 비교,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은 국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번역 한글성서이다. 이 책은 표지에 삼양 문광서원에서 1882년에 간행되었다는 간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내용 중에 ‘하느님’의 용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고, 1883년본과 비교한 결과 모음 /·/ 표기의 사용이 많고, ‘성령’대신 ‘성신’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1883년보다 시기가 조금 앞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책의 간행시기는 1882년부터 188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앞면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가 인쇄되어 있고, 뒷면은 『간독요취(簡牘要聚)』를 필사한 것인데 국내에 들어올 때는 『간독요취(簡牘要聚)』가 필사된 부분으로 장정하였다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로 재 장정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 자체가 초기 복음의 고되고 슬픈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는 증거물이 된다. 이 책은 본문은 모두 39쪽이며, 40쪽은 『강평면』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학술대회(2009. 11. 2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9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9일

으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 책표지는 황색이며 1882년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간행에 사용된 목활자는 세로×가로 0.5cm 이하의 작은 글자들이며,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기록에는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음절별 한글연활자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험결과 연활자가 아니고 목활자임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독교문헌사와 한글문헌의 연구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by reviewing in order the life of missionary John Ross, hi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Bible, the distribution of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both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and its Korean transla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cently found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1882-1883) and its 1883 version, and the value of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The newly discovered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is the first ever found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In fact, the cover is imprinted with a publication record of Mungwangseowon located in ShenYang(瀋陽) and date of 1882. However, the exact period seems to be slightly prior to 1883 due to a number of evidential contents including the word 'Haneunim(하느님)' changed to 'Hananim(하나님)', the vowel sign / · / more frequently used than in the 1883 version, and the word 'Sungsin(정신)' used instead of 'Sunryeong(성령)'. Hence, the publication date can be estimated to be between 1882 and 1883.

Moreover, on the front cover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is printed and on the back cover printed is *Gandokyochwui* which shows that it was initially bound as *Gandokyochwui* when brought into the country and was re-bound as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afterwards. The book itself documents the historical hardship and grief that the gospel suffered in the early days.

The main text of this book totals 39 pages, and 『Gangmyeongpyeon』 on page 40 explains words. The cover is yellow in color with a publication record of Mungwangseowon located in ShenYang(瀋陽), 1882. The wooden types for printing this book are smaller than 0.5cm in both width and length, and their sizes are not consistent. In fact, it was recorded to be printed with lead metal types cast in Yokohama, but the test result shows that they were not lead types, but actually wooden typ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the fields of history of Christian literatures and Hangul literatures as well as bibliography.

Key words: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 *Yesuseongkyo Yoannaebokeumjeonseo*(1882-1883)

1. 序 論

로스 번역(Ross Version)으로 일컬어지는 한글성서는 1882년부터 1877년까지 만주 심양에서 번역하여 간행된 9종의 한글성서를 말한다. 이들 한글성서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합작으로 국내에 복음전파를 위해 시도된 번역 간행사업 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로스(Dr. Rev. John Ross ; 1842~1915, 한문이름 羅約翰) 목사와 그의 매제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를 비롯하여 한국인 동역자인 李應贊, 李成夏, 白鴻俊, 金鎭基 등의 주도하에 1882년 5월에 봉천(지금의 심양)에서 목활자로 3,000부가 인쇄되었고, 이어 1883년 10월에 300부가 간행되었다. 이 중 1882년본은 현재 영국 대영성서공회 도서관과 미국성서공회에 소장되어 있을 뿐 국내에는 없고, 1883년본은 영국 대영성서공회 도서관과 숭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하게 필자의 눈에 띄었다. 이 자료를 만나던 날은 기쁘기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어느 지역에서건 초기 복음의 역사는 고되고 슬프다. 책을 보는 순간 이 책을 국내로 들여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얇은 책자인데 아주 작은 목활자로 복음 내용을 인쇄한 것이다. 뒷면에는 『간독요취(簡牘要聚)』가 복음서의 활자보다 크게 필사되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올 때는 『간독요취』가 필사된 부분으로 장정해서 관리의 눈을 피해 들여왔다가 복음 선교를 위해 다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가 인쇄된 부분으로 재 장정한 것이다.

이 책은 표지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1882년에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초간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상의 특징 중 하나인 ‘하느님’의 명칭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 1883년의 간행본으로 여겨지는데 언어표기 양상이 1883년 본과도 차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연구를 통한 간행연대 고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존 로스 목사의 생애와 한글성서의 번역·간행, 『예수성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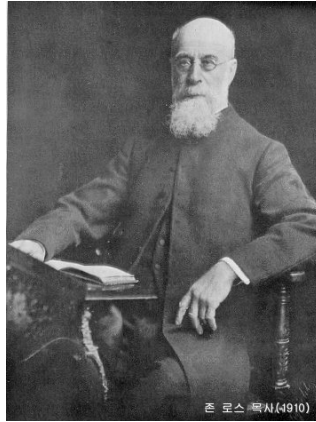
『요안니복음전서』의 보급과 유통,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서지적 특징,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번역본의 특징,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발굴본(1882-1883년)과 1883년본의 비교,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독교문헌사와 한글문헌의 연구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로스 목사의 생애와 한글성서의 번역·간행

로스 목사는 북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로스(Hugh Ross)와 서더랜드(Catherine Sutherland)의 장남으로 1842년 8월 9일에 태어났다.

1860년대 중반 로스는 에딘버러에 있는 연합장로교회의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에 인버네스에 있는 브라운(George Brown) 목사의 전도사로서 봉사했다. 1868년 가을부터 선교활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서 해외 선교부 총무인 맥길(William McGill) 박사와 접촉했다. 1872년 2월 27일에 해외 선교부는 그를 선교사로 선택했고, 3월 20일에 엘진(Elgin)과 인버네스(Inverness)의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3월 25일에 스튜어트(M. A. Stewart)와 결혼했으며 4월 초에 중국으로 출발하였다. 그해 8월 23일에 중국 산둥 반도의 지부(芝罘)에 도착해서 1910년에 은퇴하기까지 3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서 활동하였다(그림 1 참조).

1850년대에 중국은 몇몇 항구를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1871년부터 연합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성서협회(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대표였던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의 지도하에 매킨타이어 목사, 니콜(Lewis Nicol)과 헨더슨(Dr. William A. Henderson) 의사 등이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로스 목사가 1872년 8월 23일 지부에 도착했을 때 여러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만주를 선교지로 정하고 10월 초에 영구(營口)에 들어가서 정착하였다. 로스 목사는 영구지방을 순회 전도했는데, 이때 그의 선교 방법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자국의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림 1> 1910년의 존 로스 목사 사진

된다고 믿었다. 로스 목사는 사서삼경을 열심히 익혔고, 유교를 그들의 훌륭한 가치관으로 인정했으며, 설교시에는 이 윤리적 가치관을 중국인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1873년 영구에 학교를 세워 중국 고전만을 가르쳤고, 1875년 봉천에 학교를 세워 사서오경을 유일한 교과서로 채택하였으며, 1883년에 시작한 신학교교육과정에서도 유교의 윤리관을 필수과목으로 두었다. 또한 만주의 토착교회를 위해서는 중국인 목회자 양성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¹⁾ 한편 로스 목사보다 먼저 중국에 도착하여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매킨타이어 목사²⁾는 만주의 영구로 옮겨 로스 목사의 일을 도왔다.

1)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1992. 1), 116-121.

2)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목사는 1837년 7월 18일에 스코틀랜드의 록크 로몬드(Loch Lomond)에 있는 러쓰(Luss)에서 출생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에든버러에 있는 연합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865년에 안수를 받고 베일리스턴(Baillieston)교회에서 목사 취임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했다. 1871년 중국에 들어서서 지부 서쪽 200킬로미터에 있는 유현에서 목회했다. 매킨타이어가 만주의 영구로 옮겨 로스 목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876년 초에 로스 목사의 여동생 캐더린과 결혼했다. 그녀는 로스 목사의 아들 드러몬드를 기르고 중국 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로스 목사와 매킨타이어는 선교활동과 성서번역 등의 일을 서로 도와가면 진행하였다. 1905년 9월 1일에 사망하였다.

로스의 성서번역은 1874년 봉황(鳳凰)의 고려문을 방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로스의 한국 선교 계획은 1874년 10월에 鳳凰城의 高麗門³⁾을 방문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영구를 출발하여 대석교(大石橋)와 수암주(岫巖州)를 거쳐 봉황성의 고려문으로 들어갔다. 로스 목사는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나 강론도 하고 성경도 팔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두 번째로 1876년 4월말에서 5월초에 고려문을 방문하여 조선으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하였다(그림 2 참조).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왔던 한약장수 李應贊을 만나게 되었다. 이응찬은 로스 목사와 일주일을 함께 지낸 뒤에 로스 목사의 한국어 선생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매킨타이어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한편 로스 목사는 李成夏, 金鎭基, 白鴻俊을 만나 세례를 주었다.⁴⁾ 이를 계기로 1877년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 1881년 전도문서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이 번역되었다. 1882년 3월에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5월에는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를 시작으로 1883년 10월에는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 대자홍적』과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1884년에는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과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 1885년에는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이미쇼셔신』,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 등이 번역되었으며, 1887년에는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이 완역되었다. 이를 로스 번역본(Ross Version)이라 부르기도 하고,⁵⁾ 실제 번역자들이 한국인 개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수성교본’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⁶⁾

이러한 예수성교본의 번역은 번역자, 번역저본, 번역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준비기는 로스 목사가 이응찬을 만난 1874년 가을부터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 간행되는 1877년까지이다. 제2기는 18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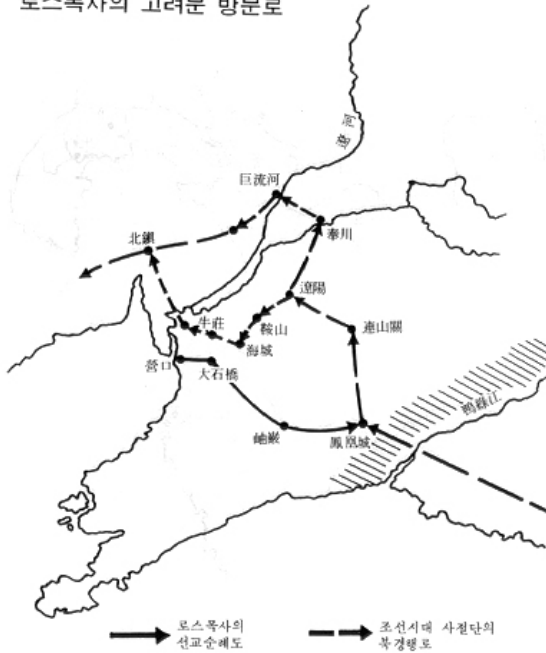
3) 고려문은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으며, 이곳에는 출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나라 별정소(別定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주부(義州府)의 집사(執事) 몇 사람이 항상 파견, 주둔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교역 시장이 열려 많은 한국인이 찾아와 교역하고 돌아가곤 하던 곳이다.

4) 李萬烈,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7), 22-23.

5) 박범석, “경전번역의 탈권위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의미: 개화기 한글성서 번역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5(2006), 55-57.

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92), 148.

로스목사의 고려문 방문로



<그림 2> 로스 목사의 고려문 방문로

여름 이용찬에 의해 『요안니복음』 번역이 착수된 이래 1879년 4월 로스가 영국으로 안식년의 휴가를 떠나기 전까지로, 6-7명의 한국인 번역자와 로스가 1852년 간행된 대표자역본(Delegates' Version)인 한문 『新約全書文理』를 대본으로 하여 『마태복음』에서부터 『로마서』까지 번역하였으며 이 기간에 번역에 참가한 이는 이용찬, 서상륜과 최초의 수세자인 백홍준 등이었다. 한편 로스 목사는 이 시기에 초역된 원고를 가지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로 찾아가 한글성경 번역의 지원을 약속받게 되었다. 제3기는 로스의 휴가기간 동안 牛莊의 매킨타이어의 주도로 번역이 진척·수정되는 시기이며, 1879년 5월부터 1881년 5월까지 2년 동안이다. 매킨타이어는 이용찬, 최성균을 비롯한 5-6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보다 세심한 번역을 주도하면서 1881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을 이용하여 수정·보완

하는 순서를 밟았다. 제4기는 완역기로서 번역과 동시에 출판이 이루어졌다. 로스가 귀국한 1881년 6월부터 1886년 가을까지 봉천의 심양문광서원에서 번역이 진행되었다.⁷⁾

로스 번역은 위에서 언급한 한문성경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그리스 성경⁸⁾을 참고하고 1881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을 이용하여 수정·보완하는 순서를 밟았다. 따라서 로스 번역은 한문성경을 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문표현과 서북 사투리에 남아 있는 고어들이 자주 발견되고, 한글이 현대어로 발달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자를 거의 쓰지 않고 한자어를 과감하게 한글로 풀어쓰면서 한글로 번역하였다.⁹⁾

로스 번역본 인쇄의 주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서 전담하게 되어 1881년 인쇄기를 상해에서 구입하여 이를 봉천에 설치하였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든 목활자를 일본 주재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총무인 릴리(Lily) 목사에게 보내 4만개의 연활자를 만들어 봉천으로 가져 왔다. 인쇄공으로는 중국 신자중 인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한국인 金靑松이 채용되어 인쇄에 투입되었다¹⁰⁾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활자가 어느 성서본부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또 다른 연구의 여지를 남긴다.

이와 같이 성경출판은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NBSS)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고, 1883년에는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BFBS)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1887

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46-148.

8)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지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1843~1911),”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30호(2009. 3), 232-236에 의하면, 이 그리스 성경은 로스 목사가 1879년부터 1881년까지 안식년차 만주를 떠나 영국에 체류할 때 옥스퍼드 대학 중국학 교수인 레그(James Legge 1814~1897)가 로스 목사에게 선물한 개역헬라어성경이다. 이 개역헬라어성경은 E. Palmer,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Oxford: Oxford Univ. Press, 1881)으로 보고 있다.

9) 김창주, “한글성서의 번역·보급과 그 문화·사회사적인 의미,” 『신학사상』 124집(2004. 3), 226-232.

10) 金良善,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白山學報』 第3號(1967), 430.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년에 수만 권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1882년 3월과 5월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각 3,000권, 1883년 10월에는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 데자훙적』과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각 3,000부, 1884년에는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과 『예수성교성 코복음』 각 5,000부, 1885년에는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이비쇼서신』 10,000부 등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신약번역은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로 묶여져 나오게 되며 339쪽 5,000부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예수성교본의 발행은 1891년 『예수성교성서 맛디복음』 5,000부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예수성교본의 발행은 로스 목사와 매킨타이어 부부, 십여 명의 한국인 번역자들과 식자공들, 중국인 인쇄공들과 교인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¹¹⁾

3.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보급과 유통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스 번역본 중의 하나이며 1882년 5월에 3,000부씩 간행되었고, 이어 1883년 10월에 300부가 또한 간행되었다. 이 책자는 다른 성교전서본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식으로 한국에 보급되었다.

첫째, 로스 목사가 번역에 직접 참여한 김청송을 최초로 완성된 복음서를 가진 전도자 겸 권서로 삼아 서간도지역 한인촌에 파송하여 보급하였다. 그는 그의 고향이자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國內城: 通溝)이었던 집안(輯安)을 중심으로 한인촌을 돌며 반포하였다. 이로 인해 세례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실은 로스 목사에게 보고되었다. 로스 목사는 1884년 11월 중순 그의 동료 웹스터(J. Webster)와 함께 한인촌 방문에 나서 7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해 여름에 다시 한인촌의 방문에 나서 25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는

11) 이만열,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그 특징,” 『아세아연구』 106호(2001. 12), 6.

로스 번역본 성경의 보급으로 인한 성과였다.¹²⁾ 이러한 노력은 집안현의 이양자 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의주지방은 1879년부터 백홍준의 전도로 구도자가 생기면서 성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가 간행되자 수입하는 폐지 속에 장정이 되지 않은 복음서 낱장을 끼워 밀반입하기도 하였다.¹³⁾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 종교서적의 유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신간된 복음서를 들여오는 일도 문제가 되었다. 인쇄된 복음서를 장정하지 않고 상인의 古紙와 동봉하면 검사하는 관리의 눈을 피할까하여 그 방법으로 수입해 들였다.¹⁴⁾ 이러한 방식으로 성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의주지방은 백홍준이 교리문답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적어도 1885년에는 18명의 신자로 예배처가 마련되어 국내 최초의 자생교회인 의주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¹⁵⁾

셋째, 평양지방은 김충송에 이어 두 번째 식자공으로 활동했던 동지사 수행원 출신의 청년이 모친이 위독하여 1883년 5월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 1천 권의 누가·요한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길거리가 아닌 집과 여관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¹⁶⁾ 이것이 후일 평양교회의 기반을 만드는 시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서상륜이 1883년 초 제2 식자공으로부터 4백 권의 복음서를 후반기 6개월간 서울을 중심으로 보급하였고, 1884년에는 로스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량의 성경과 소책자를 로스로부터 받아서 보급하였다. 한편 서상륜의 동생 徐景祚는 형으로부터 신약전서와 『덕혜입문』 등의 소책자를 받아 소래(松川)를 중심으로 보급하였다. 서상륜은 1885년 초에는 봉천을 방문하여 국내에 있는 70여 명의 세례청원자의 존재를 보고하였고, 의주를 거쳐 소래로 돌아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늦어도 1886년까지는 예배처를 마련하여 소래신앙공동체가 시작되었다.¹⁷⁾

12) 이만열,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그 특징,” 『아세아연구』 106호(2001. 12), 7-10.

1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5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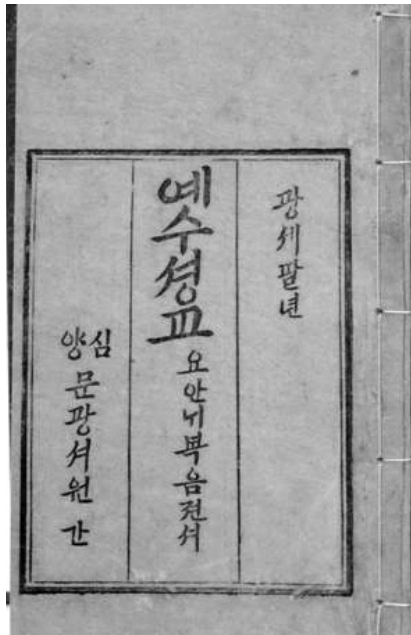
14)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887), 133.

15)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55.

1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55.

4.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서지적 특징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본문은 모두 39쪽이며, 40쪽은 강명편으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 책표지는 황색이며 1882년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3 참조). 하지만 이 책의 간행시기는 뒤에서 언급되는 번역상의 특징과 1883년본과의 언어표기 양상 및 고유어 표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 1882~1883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본문이 인쇄된 뒷면은 백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청의 서식을 모은 「간독요취(簡牘要聚)」로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국경지대를 통과하기 힘들어 서식집 뒷면에 인쇄하



<그림 3>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표지
심양: 문광서원, 광세팔년(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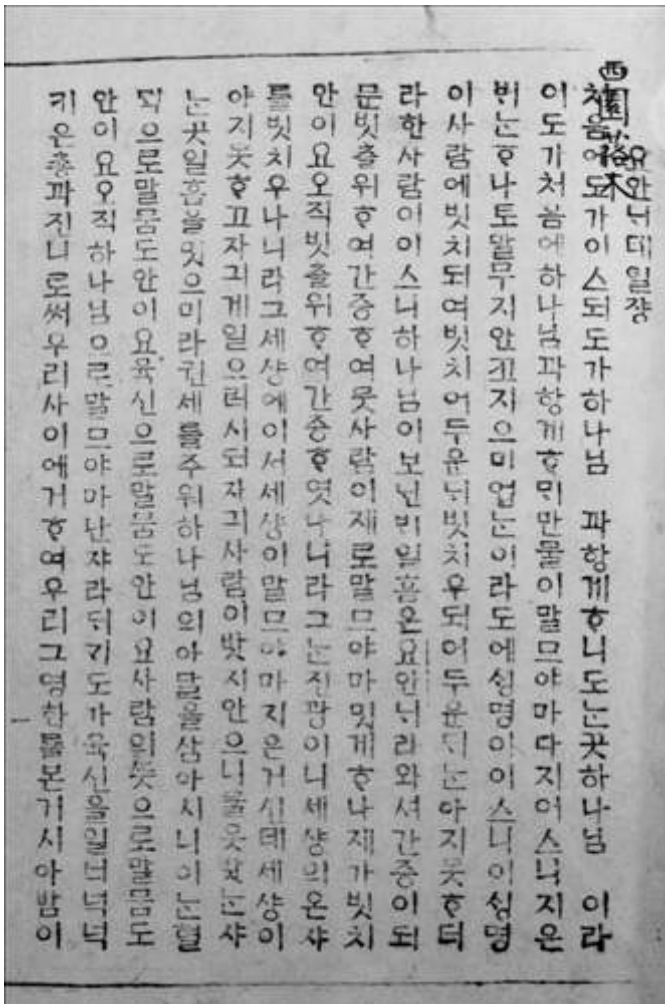
1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55-156.

여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장정을 다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半郭 16.7×12.2cm, 無界 14行28字, 無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3.6×14.3cm이다.

이 복음서의 간행은 로스 목사가 2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1881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서 지원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35,563개의 음절별 한글연활자가 7월에 도착하였고, 인쇄기는 상해에서 구입하였다. 2명의 중국인 인쇄공과 서간도 한인촌 집안(輯安) 출신의 매약상 김청송이 식자공으로 채용되면서 심양 문광서원에서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이 10월 초에 간행되었다. 신약의 요약판인 두 권의 성서가 수천 권이 인쇄되어듬해 한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반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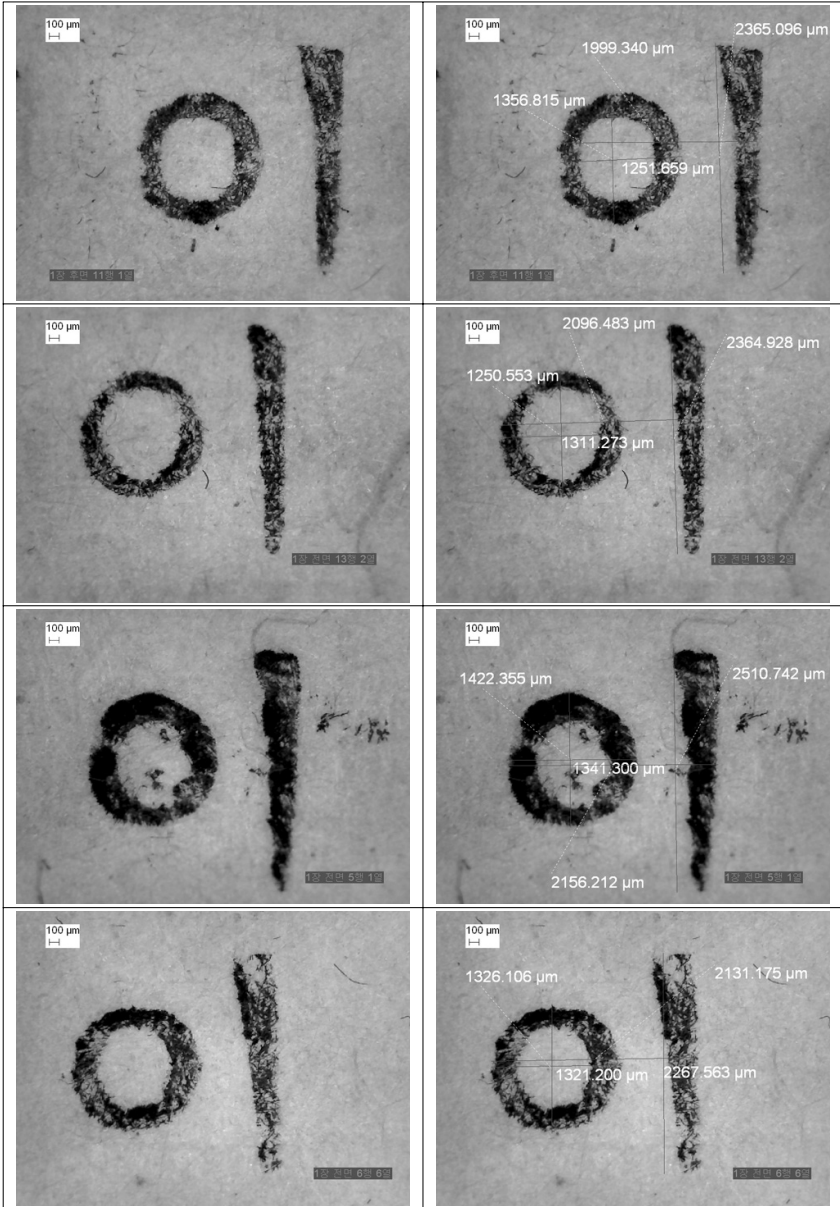
이 복음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연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남아 있는 현전 실물에 의하면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니복음전서』에 사용된 활자는 연활자가 아니고 목활자이다. 당시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35,563개의 음절별 한글연활자가 언제부터 실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책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활자는 세로×가로 0.5cm 이하의 작은 글자들이며,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그림 4 참조). 영국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1881년 인쇄기를 상해에서 구입하여 봉천에 설치한 다음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든 목활자를 먼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니복음전서』의 인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8) 이만열, “로스본의 번역·출판·권서사업(Ⅱ),” 『빛과 소금』 (1987. 9), 20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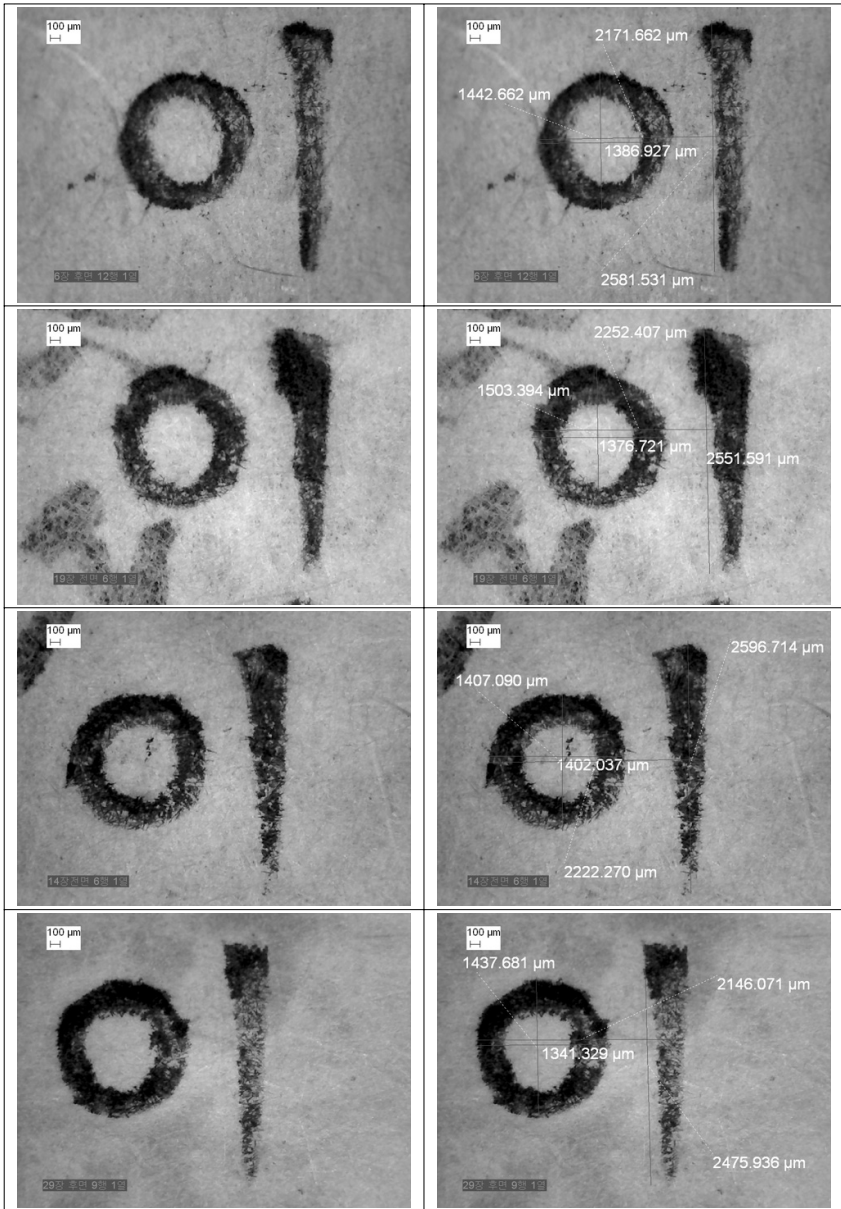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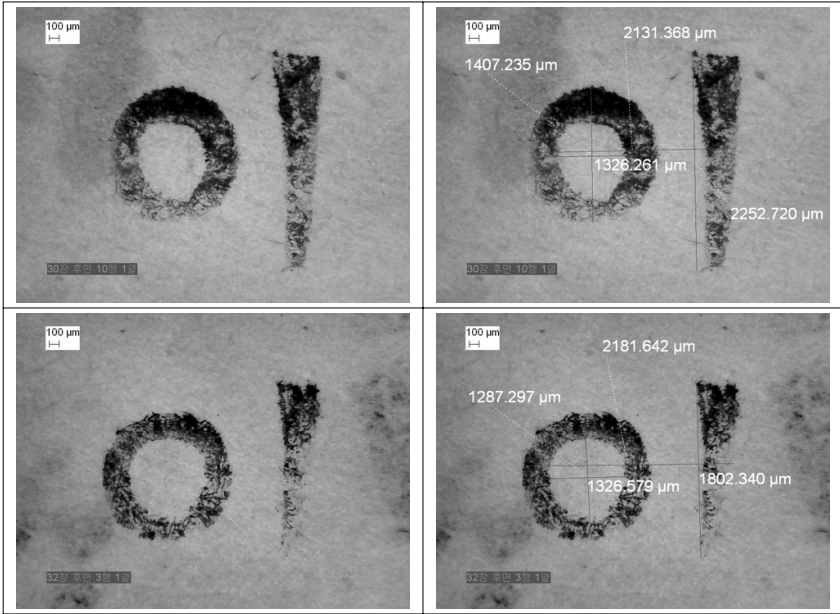
<그림 4>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1장 전면

이 활자가 목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글자인 ‘이’ 활자들을 10종 추출하고 실측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그림 5>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이’ 활자종류 및 크기 실측 샘플

위의 <그림 5>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이’자 중 ‘ㅇ’의 크기는 평균 1.3×1.4cm이고, 전체는 2.2×2.5cm이다. ‘이’자 중 ‘ㅣ’는 획의 굵기, 모양, 길이가 모두 다르다. 금속활자본에서 나타나는 모양의 정연함과 일정함이 없고 각 글자마다 제각기 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금속 활자가 아니고, 글자의 굵기와 가늘기의 차이가 심하며 고르지 않은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자 중 ‘ㅣ’의 起筆 부분이 모두 다른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고 칼자국이 남아 있다. 기필 부분이 다른 것은 목활자본의 경우 활자 하나하나가 글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새겨내기 때문에 동일한 활자라 하더라도 같은 글자 모양이 없고 조금씩 또는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활자가 매우 작아 얼핏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확대하여 보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5.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번역본의 특징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1882년 5월에 1차 간행된 이후, 1882-1883년본, 1883년본, 1885년본, 1887년본이 출간되었는데 이들 번역본들 사이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1882년부터 1887년 사이의 로스 번역본인 요안니복음전서의 1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하나님’의 명칭의 경우 1882년에 번역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던 것이 1882-1883년본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로스 목사가 한글 성서번역의 대표지역본에 사용된 상제(上帝: Heavenly Lord)라는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처음에 ‘하느님’을 썼던 것은 순수한 토박이 말인 하늘(天)과 님의 합성어인 하느님으로 생각한 것이다.¹⁹⁾ 또한 그가 스코틀랜드로 보낸 선교보고서인 ‘*Corean New Testament*’에서 한국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느님’ 개념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테오스(Θεός)’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느님’은 곧 ‘heaven+lord’라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²⁰⁾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오늘날의 주장과 같이 ‘하느님’이 범신론적인 신개념이기 때문에, 또한 범신론적인 신개념은 기독교의 유일신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백낙준은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전용되었고 관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님’ 즉 유일신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졌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²¹⁾

둘째, 번역본 성서에서의 문장은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몇 가지 단어 앞뒤에서 글씨를 한 칸 띄어 쓰는 간자(間字)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²²⁾ 간자가

19)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지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1843~1911),”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30호(2009. 3), 227.

20) 이환진, “성서이야기 한글성서 1887-1993년,” 『세계의 신학』 24(1994), 145.

21) 정규훈, 『한국근대와 기독교』 (서울: 그리스, 2004), 95.

22) 우리나라의 고문헌에는 임금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문장 중 임금과 관련 있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예수, 키리스토(그리스도), 쥬(주) 등의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1882년본과 1883년본은 각각 ‘하느님’과 ‘하나님’의 글자 앞에 간자가 나타나는데, 발굴본인 1882-1883년본에는 ‘하나님’의 글자 뒤에 간자가 나타나고 있다. 1885년본과 1887년본에는 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로스가 염두에 두었던 번역본의 독자는 식자층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어서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순 한글을 썼을 뿐 아니라 대응어 선택에 있어서도 가능한 쉬운 우리 고유어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번역하려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인다.

넷째, 한글이 현대어로 발달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글은 종결형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부호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로스의 번역본에서는 장과 절은 물론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도 되지 않았다.

1882년부터 1887년 사이의 로스 번역본 요안니복음전서의 1-5절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의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로스 번역본 1882년부터 1887년 사이의 요안니복음전서의 1-5절의 비교

요안니테일장 1-5절까지의 내용	
요안니테일장(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1-5절, 심양문광서원, 1882년본)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느님과함께 하니도는곳 하느님이라이도가처음에 하느님과함께 하니 만물이말무야다지여스니지은비는 하나도말무디안코지오미업년이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 이사람에빗치되야빗치어두운데빗치우되어두운데는아지못 하더라	
요안니테일장(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1-5절, 심양문광서원, 1882-1883년 발굴본)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하나님 과함께 하니도는곳하나님 이라이도가처음에하나님과함께 하니 만물이말미여다지여스니지은바는하나도말미지안코지오미업나니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 이사람에빗치되여빗치어두운디빗치우되어두운디는아지못 하더라	
요안니테일장(예수성교 요안니복음 1-5절, 심양문광서원, 1883년본)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나님과함께하니도는곳 하나님이라이가처음에 하나님과함께하니 만물이말미여다지여스니지은바는하나도말미지안코지오미업나니라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 이사람의빗치되여빗치어두운디빗치우되어두운디난아지못 하더라	

글자 다음에 한 칸을 비워두거나 행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간자(間字) 또는 공격(空格)이라고 하고 후자는 개행(改行)이라 하는데, 일본에서는 대두(擡頭)라고 하였다.

<p>요안니테일장(예수성교 요안니복음 1-5절, 심양문광서원, 1885년본) 처음에도가이사되도가하나님과함께 흐니도는곳하나님이라이도가처음에하나님과함께 흐디만 물이말무암아다지여사니지은바는한나토말무지안코지오미업나니라도에성명이이사나이성명 이사람의빚치되여빚치어어두온디빚치우되어두온디난아지못흐다라</p>
<p>요안니테일장(예수성교전서 요안니 1-5절, 경성문광서원, 1887년본) 처음에도가이사되도가하나님과함께 흐니도는곳하나님이라이도가처음에하나님과함께 흐디만물 이말무암아다지여스니지은바는한나토말무지은코지오미업나니라도에성명이이사나이성명이 사름의빚치되여빚치어어두온디빚치우되어두온디는아지못흐더라</p>

6.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발굴본(1882-1883년)과 1883년본의 비교

6.1 언어표기 양상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A본)(이하 A본으로 칭함)과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광서 9년(1883)에 간행한 1883년본(이하 B본으로 칭함)²³⁾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본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하느님’의 명칭은 모두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 이 두 판본은 간행시기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문체상의 언어표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제1장 1절부터 51절까지 차이가 나는 언어표기 양상에 대해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광서 9년(1883)본은 정길남 편,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성서문헌편』 6 (서울: 박이정출판사, 1995), 328-383에 실린 텍스트(심양: 문광서원, 1883)를 저본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2>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A본)과
1883년 간행본(B본)의 언어표기 양상 비교

장. 절	발굴본(1882-1883년)(A본)	1883년본(B본)
1장1절	항게 흐니	함기 하니
1장2절	항게 흐미	함기 하미
1장3절	말뜨야마	말미여
	지어스니	지어스니
	빈는	바는
	흐나토	하나토
	말무지	말미지
	업는이라	업나니라
1장4절	사람에	사람의
1장5절	못 흐더라	못하다라
	어두운	어두운
	디는	디난
1장6절	빅	바
1장7절	위 하여	위 하여
	간증 하여	간증 하여
	제료	더료
	말뜨야마	말미여
	흐나	하나
1장8절	제가	더가
	위 하여	위 하여
	간증 하였나니라	간증 하였나니라
1장9절	세상의	세상에
1장10절	말뜨야마	말미여
1장11절	일으러시되	닐으러시되
1장12절	물웃 밧는	물운 밧난
1장13절	말뎡도	말뎡도
	말뜨야마	말미여
	난	는
1장14절	갓타니라	갓타니라 흐다라
1장15절	빅	바
	뒤여	뒤예
1장17절	늘뵈	늘뵈
	말뜨야마	말미여
	말무앗나니라	말미엇나니라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장, 절	발굴본(1882-1883년)(A본)	1883년본(B본)
1장18절	표명흐나니라	표명흐나니라 흐다라
1장19절	갓튼	갓텐
	흐나나	흐나노
1장21절	몰오더	몰우되
	니 안이라	안이라
1장22절	보닌자의게	보닌자으게
	그런즉	갈오더
1장23절	디답흐여 갈오더	갈오더
	들이에서	들게서
	불운	불은
	빅	바
1장24절	밧튼	바튼
1장25절	몰어 갈오더	갈오더
	밧팀네	밧팀레
1장26절	몰노씨	몰노
	가운데	가온디
1장27절	저의	더의
	못홀	못할
1장28절	일운	일은
	밧팀네	밧팀레
1장29절	세상에	세상의
1장30절	빅	바
1장31절	저들이	더들이
1장32절	성신	성령
	씨들기	비들기
1장33절	성신	성령
	밧팀네	밧팀레
	흐난	흐난
1장35절	함게	함기
1장38절	무어슬	무어슬
	스싱	스승
	어지	어디
	사나니잇가	사느니잇가
1장39절	저이여	더이여
	빅	바
	함게	함기
1장40절	안드라더라	안드라다라

장, 절	발굴본(1882-1883년)(A본)	1883년본(B본)
1장41절	테	더
	만나여	만니여
	맞나였다	맞니였다
1장42절	너논	너난
1장43절	가고자	가고져
1장45절	빅	바
1장47절	일으물	닐으물
1장49절	스싱님	스승님
1장51절	하날	흐날
	너으게	너의게

위 <표 2>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본(1882-1883년)(이하 A본으로 칭함)이 1883년본(이하 B본으로 칭함)에 비해 모음 /·/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A본에는 /ㅎ/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B본은 /ㅎ/와 /하/가 공존하고 있지만 거의 /하/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로 보아 A본이 B본에 비해서는 시기가 좀 더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어두에 /ㄴ/을 쓰고 있는 용례가 보이는데, 놀법(A본 1장17절)/놀법(B본 1장17절), 닐으러시되(B본 1장11절)의 경우이다. 어두에 /ㄴ/을 쓰는 용례는 만주에서 번역된 성서에 한정되는데 이는 서북방언에서 /ㄴ/을 어두에 쓰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어두에 /ㄴ/을 쓰는 용례도 B본이 서북방언의 형태를 더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A본에는 /ㄷ/ 구개음이 표시되고 있고, B본에는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용례가 보인다. 제로(A본 1장7절)/더로(B본 1장7절), 제가(A본 1장8절)/더가(B본 1장8절), 저들이(A본 1장31절)/더들이(B본 1장31절)의 예이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이 구개음화는 17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에는 거의 이루어졌지만 서북방언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B본이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서북방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본과 B본 모두 음절 말의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ㅅ으로 정착되는

24) 정길남, “개화기 구역성서의 표기법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95권(1986. 5), 109-110.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예는 빛논(A본 1장 12절)/ 빛난(B본 1장 12절), 갓타나라(A본 1장 14절)/갓타나라 흐다라(B본 1장 14절) 등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어학 분야에서는 음절말의 자음인 /ㅅ/과 /ㄷ/은 15세기에는 잘 지켜지다가 17세기부터 혼란이 일어났으며 18세기에는 /ㅅ/으로 단일표기화되는 현상으로 귀착되었다고 하여, 이 현상은 현대어법에 이르지 못한 근대표기의 한 형태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였다.²⁵⁾

다섯째, A본과 B본 모두 단어 사이에 연결이 되고 있는 예가 보인다. 무어슬(A본 1장38절)/무어슬(B본 1장38절)의 예는 형식명사 /무엇/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존형태소가 연결되었는데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어학 분야에서는 /무엇/ 이 형식명사의 기능과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체언의 범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인식된 데서 이러한 표기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여섯째, 여격조사 /으게/와 /의게/가 쓰이고 있는데, 그 예는 보닌자의게(A본 1장 22절)/ 보닌자으게(B본 1장 22절), 너으게(A본 1장 38절)/너의게(B본 1장 38절) 등이다. /으게/와 /의게/는 선행모음에 관계없이 쓰이는데 이는 방언적인 특성을 지니며 로스 번역본에는 /으게/를 존대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²⁷⁾

일곱째, 몇 가지 용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 대표자역본에 사용된 ‘洗禮’의 용어가 A본에는 밥뎨네로 B본에는 밥뎨레로 표기되어 있다. A본 끝부분인 「강명편」에는 밥뎨네를 “예수교에 드넨법이니 물노써 흐너니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중국 대표자역본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洗禮’라는 용어의 채택 여부로 인해 미국침례회(American Baptist Board)가 탈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로스 목사는 ‘洗禮’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Baptism하는 레(禮)’²⁸⁾의

25) 정길남, “이수정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6호(1984), 157-158.

26) 정길남, “개화기 구역성서의 표기법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95권(1986. 5), 118.

27) 정길남, “초기 구역성서의 격조사에 관하여,” 『한국학논집』 8호(1985), 399-400.

28) Baptism은 “잠기다”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기독교회의 초기부터 있었던 의식이며 성례이다. 이 단어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까지는 교회의 예식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원래 Baptism의 양식은 침수였다.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뒤과 동시에 그 죽음으로부터 갑자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침례는 그리스

뜻인 ‘밧뵎네/밧뵎레’로 번역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A본에는 ‘성신’(1장32절, 33절)이 B본에는 ‘성령’(B본 1장32절, 33절)으로 표기되고 있다. ‘성신’의 용어는 1882년 3월에 번역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도 사용되었지만 1883년 10월에 번역된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 데자홍적』에는 성령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A본이 B본에 비해 앞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날’(A본 1장51절) 또는 ‘홍날’(B본 1장51절)은 만주에서 번역했던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로스 목사의 번역사업을 도왔던 서상륜 등 한국인 청년들의 평북방언이 성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²⁹⁾

6.2 고유어의 표기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 나타나는 고유어의 표기는 그리스어에 충실하거나, 한자음을 차용하거나 영어식의 표기 등의 용어가 함께 혼재되고 있는데, 위에서와 같이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A본)과 1883년본(B본)의 제1장 1절부터 51절까지 나타나는 고유어의 표기양상에 대해 두드러지는 몇 가지를 <표 3>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A본)과 1883년 간행본(B본) 고유어의 비교

장, 절	발굴본(1882-1883년)(A본)	1883년본(B본)
1장6절	요안니(요한)	요안니(요한)
1장15절	요안니(요한)	요안니(요한)
1장17절	미세(모세)	모쇼(모세)
	예수 키리스토	예수 키리스토
1장19절	예루살렘(예루살렘)	예루살임(예루살렘)
1장20절	키리스토	키리스토

도와 함께 장사되고(옛 사람의 죽음)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새 사람의 탄생) 신앙의 구조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예식이었다.

29) 정길남,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 『국어국문학』, 11권(1994. 5), 89.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장, 절	발굴본(1882-1883년) (A본)	1883년본(B본)
	이니아(엘리야)	이니아(엘리야)
1장23절	이사야	이사야
1장25절	이니아(엘리야)	이니아(엘리야)
1장28절	올단(요단)	올단(요단)
	비다니(벳아니)	비다니(벳아니)
1장31절	이살일(이스라엘)	이살일(이스라엘)
1장40절	시몬 피들(시몬 베드로)	시몬 피들(시몬 베드로)
	안드라	안드라
1장41절	시몬	시몬
	미시아	미시아
	키리스토	키리스토
1장42절	키파	키파
	피들	피들
1장43절	가나니(갈릴리)	가리릭(갈릴리)
	비님(필립)	비립(필립)
1장44절	비님(필립)	비립(필립)
	빅시더(벧새다)	빅시다(벧새다)
1장45절	나단익(나다나엘)	나단익(나다나엘)
	모쇼	모쇼
	비님(필립)	비립(필립)
1장46절	나단익(나다나엘)	나단익(나다나엘)
	나살일(나사렛)	나살릿(나가렛)
1장47절	이살일(이스라엘)	이살일(이스라엘)
1장48절	비님(필립)	비립(필립)

위 <표 3>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일반적으로 불리는 ‘요한’은 /요안니/로 표기되어 있다. 요한복음서는 처음에 이름 없이 회람되다가 교회전승에 따라 2세기에 ‘요한에 의한’이란 그리스어말 이름인 『카파 요안넨(Κατα Ιωάννην)』이고, 라틴어로는 ‘요한에 의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란 뜻의 『Sanctum Jesu Christi Evangelium Secundum Joannem』이다.³⁰⁾ 이 복음에서 일컫는 요한은 남자 이름으로, ‘자비

30) 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성경읽기안내 신약』 (서울: 성서와 함께, 2007), 44.

로운 여호와'라는 뜻의 성서 속 이름 יהוה(여호하난)과 그 줄인 이름 יה(요하난)에서 왔다. 이 이름은 여러 언어를 거치면서 발음이 변화되었는데 70인역의 그리스어로는 Ιωαννης(이오안네스)이고 라틴어로는 Ioannes/Joannes(요안네스), 중국어로는 若翰/約翰으로, 일본어로는 ヨハネ(요하네)로 번역하였다.³¹⁾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서 번역된 /요안니/는 그리스어음에 가깝게 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중국어를 음역한 단어들의 예가 나타나는데, 예수는 耶蘇(예수),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임은 耶路撒冷(예루살렘), 이니야(엘리아)는 以利亞(이리아), 이살일(이스라엘)은 以色列(이씨리에), 가니니(갈릴리) 또는 가리리는 加利利(자리리)에서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³²⁾

셋째, 영어식의 한글표기 중 '피들'이 보이는데, 피들(Peter)은 고유명사의 첫 음소인 /p/, /t/ 등을 /ㅍ/, /ㄷ/ 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로스역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첫 음을 변이음(allophone) 가운데 강음을 택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는 그 원음인 그리스어에 가깝게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우리말의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음소 개념을 잘못 인식한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³³⁾ 중국 북방지역의 경우 얼화(儿化)하는 경우가 있어 단어 아래 '儿' 을 붙이기도 하고 발음 시에만 얼화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피들은 彼德(비더)이고, 읽을 때 얼화하여 彼德(비덜)로 읽고 이것이 변화하여 피들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

이번에 발굴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

31) 인터넷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9A%94%ED%95%9C_\(%EC%9D%B4%EB%A6%84\)](http://ko.wikipedia.org/wiki/%EC%9A%94%ED%95%9C_(%EC%9D%B4%EB%A6%84)))에서 인용.

32) 한미경,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40-97.

33) 정길남, “개화기 구역성서의 표기법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95권(1986. 5), 124-125.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882년의 간기를 지니고 있는 로스 번역의 한글성서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행연대를 가지고 있으나 1882년본에 나타나는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으며 1883년본과 비교해보면 언어표기 양상과 고유어의 표기에 차이가 많다. 언어표기 양상에서는 모음 /·/ 표기의 사용이 많고, ‘성령’대신 ‘성신’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1883년보다 시기가 조금 앞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간행시기는 1882년부터 188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발굴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로서는 최초본이며, 근대 기독교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자료는 보물지정이 가능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로스 번역본 중의 하나이며 1882년 5월에 3,000부씩 간행되었고, 이어 1883년 10월에 300부가 또한 간행되었다. 이 책자는 다른 성교전서본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식으로 한국에 보급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그 경로는 알 수가 없다.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 종교서적의 유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신간된 복음서를 들여오는 일도 문제가 되었다. 성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1882년에 간행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를 수입하는 폐지 속에 장정되지 않은 복음서 낱장을 끼워 밀반입하기도 하였고, 인쇄된 복음을 장정하지 않고 상인의 古紙와 동봉하면 검사하는 관리의 눈을 피할까하여 그 방법으로 수입하기도 하였다. 발굴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가 인쇄된 뒷면이 백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청의 서식을 모은 「간독요취(簡牘要聚)」로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국경지대를 통과하기 힘들어 서식집 뒷면에 인쇄하여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장정을 다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자체가 초기 복음의 고되고 슬픈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는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 자료는 본문은 모두 39쪽이며, 40쪽은 「강명편」으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 책표지는 황색이며 1882년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半郭 16.7×12.2cm, 無界 14行28字, 無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3.6×14.3cm 이다. 간행에 사용된 목활자는 세로×가로 0.5cm 이하의 작은 글자들이며,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기록에는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음절별 한글연활자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 사용된 활자는 연활자가 아니고 목활자이다.

8. 결 론

위에서 종합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로스(Dr. Rev. John Ross ; 1842~1915, 한문이름 羅約翰) 목사는 북 스코틀랜드 출신이며 1872년부터 1910년까지 38년 동안 만주의 영구를 중심으로 매제인 매킨타이어 목사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로스의 성서번역은 봉천(현재의 심양)에서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를 비롯하여 한국인 동역자인 李應贊, 李成夏, 白鴻俊, 金鎮基 등과 함께 1882년 3월에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5월에는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를 시작으로 1887년에는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이 완역되었다. 이를 ‘로스 번역본(Ross Version)’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성교본’으로 부르기도 한다. 로스 주관의 예수성교본의 발행은 로스 목사와 매킨타이어 부부, 십여 명의 한국인 번역자들과 식자공들, 중국인 인쇄공들과 교인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1882년 5월에 3,000부씩 간행되었고, 이어 1883년 10월에 300부가 또한 간행되었다. 이 책은 김청송이 중심이 되어 서간도 지역에, 백홍준이 중심이 되어 의주 지역에, 두 번째 식자공으로 활동했던 동지사 수행원 출신의 청년이 평양지방에, 서상륜이 서울에, 서상륜의 동생 徐景祚는 소래(松川)에 성서를 보급하였다. 성서가 보급되면서 각 지역에는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3)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본문은 모두 39쪽이며, 40쪽은 「강명편」으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 책표지는 황색이며 1882년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문이 인쇄된 뒷면은 백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청의 서식을 모은 「간독요취(簡牘要聚)」로 되어 있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半郭 16.7×12.2cm, 無界 14行28字, 無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3.6×14.3cm이다. 이 활자는 세로×가로 0.5cm 이하의 작은 글자들이며,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실측 결과 나타난 특징은 첫째, ‘이’자 중 ‘ㅇ’의 크기는 평균 1.3×1.4cm이고, 전체는 2.2×2.5cm이다. ‘이’자중 ‘ㅣ’는 획의 굵기, 모양, 길이가 모두 다르다. 글자의 굵기와 가늘기의 차이가 심하며 고르지 않은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이’자 중 ‘ㅣ’의 起筆 부분이 모두 다른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고 칼자국이 남아 있어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4)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1882년본, 1882-1883년본, 1883년본, 1885년본, 1887년본 번역본들 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하나님’의 명칭의 경우 1882년에 번역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던 것이 1882-1883년본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는 로스 목사가 ‘하느님’을 순수한 토박이 말이면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테오스(Θεος)’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하느님은 곧 ‘heaven+lord’라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오늘날의 주장과 같이 ‘하느님’이 범신론적인 신개념이기 때문에, 또한 범신론적인 신개념은 기독교의 유일신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뀐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번역본 성서에서의 문장은 띄어 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 예수, 키리스트(그리스도), 주(주) 등의 앞·뒤에서 글씨를 한 칸 띄어 쓰는 간자(間字)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1882년본과 1883년본은 각각 ‘하느님’과 ‘하나님’의 글자 앞에 간자가 나타는데, 발굴본인 1882-1883년본은 하느님의 글자 뒤에 간자가 나타나고 있고, 1885년과 1887년본에는 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로스가 옆두에 두었던 번역본의 독자는 식자층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어서 한글을 전용하되 대응어 선택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쉬운 우리 고유어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보인다. 넷째, 한글이 현대어로 발달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띄어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발굴본(1882-1883년)(이하 A본으로 칭함)과 1883년본(이하 B본으로 칭함)을 비교한 결과 나타내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본이 B본에 비해 모음/·/의 사용이 많아서 A본이 B본에 비해서는 시기가 좀 더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어두에 /ㄴ/을 쓰는 용례도 B본이 서북방언의 형태를 더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A본에는 /ㄷ/ 구개음이 표시되고 있고, B본에는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용례가 나타나는데 B본이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서북방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본과 B본 모두 음절 말의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ㅅ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A본과 B본 모두 단어 사이에 연철이 되고 있는 예가 보인다. 여섯째, 여격조사 /으게/와 /의게/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로스 번역본에 나타나 특징으로 방언적인 특성을 지니며 /으게/를 존대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일곱째, 洗禮는 A본에는 ‘밧팀네’로 B본에는 ‘밧팀레’로 표기되었고, A본에는 ‘성신’이 B본에는 ‘성령’으로 표기되고 있다. ‘하날’ 또는 ‘ㅎ날’은 로스 목사의 번역 사업을 도왔던 서상륜 등 한국인 청년들의 평북방언이 성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리스어에 충실하거나, 한자음을 차용하거나 영어식의 표기 등의 용어가 함께 혼재되고 있다.

6)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의 가치는 첫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882년의 간기를 지니고 있는 로스 번역의 한글성서로 ‘하느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으며 1883년본과 비교해보면 언어표기 양상과 고유어의 표기에 차이가 많은데 모음 /·/ 표기의 사용이 많고, ‘성령’대신 ‘성신’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1883년보다 시기가 조금 앞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책의 간행시기는 1882년부터 188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발굴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로서는 최초본이며 보물지정이 가능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는 1882년에 간행된 이후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그 경로는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가 인쇄된 뒷면이 백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청의 서식을 모은 「간독요취(簡牘要聚)」로 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국경지대를 통과하기 힘들어 서식집 뒷면에 인쇄하여 가지고 들여와서 국내에서 장정을 다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 자체가 초기 복음의 고되고 슬픈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는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 자료는 본문은 모두 39쪽이며, 40쪽은 「강명편」으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 책표지는 황색이며 1882년에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의 형식은 四周單邊, 半郭 16.7×12.2cm, 無界 14行28字, 無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3.6×14.3cm이다. 간행에 사용된 목활자는 세로×가로 0.5cm 이하의 작은 글자들이며, 각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기록에는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음절별 한글연활자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에 사용된 활자는 연활자가 아니고 목활자이다.

<참고문헌>

- 金良善.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白山學報』 第3號(1967). 401-461.
- 김창주. “한글성서의 번역·보급과 그 문화·사회사적인 의미.” 『신학사상』 124집(2004). 219-254.
- 박범석. “경전번역의 탈권위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의미: 개화기 한글성서 번역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5(2006). 51-66.
-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지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1843~1911).”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30호(2009. 3). 213-250.
- 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성경읽기안내 신약』. 서울: 성서와 함께, 2007.
- 이만열.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그 특징.” 『아세아연구』 106호(2001). 3-22.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887.
- 이만열. “로스본의 번역·출판·권서사업(Ⅱ).” 『빛과 소금』(1987. 9).
- 이환진. “성서이야기 한글성서 1887-1993년.” 『세계의신학』 24(1994). 140-160.
- 정규훈. 『한국근대와 기독교』. 서울: 그리심, 2004.
-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 95권(1986. 5). 107-129.
- 정길남. “이수정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6호(1984). 155-187.
- 정길남. “초기 국역성서의 격조사에 관하여.” 『한국학논집』 8호(1985). 375-414.
- 정길남.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말 연구.” 『국어국문학』 11권(1994. 5). 85-107.
-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1992. 1). 116-134.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한미경.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